

2014년도 6월 28일 시행

서울시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

국 어 (B책형)

해설 - 유두선 교수(남부행정고시학원)

1.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.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?

-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.
-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.
-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.
-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다.
-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.

2.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?

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먹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.

-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.
-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.
-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.
- ④ 보고 싶어요, 붉은 산이, 그리고 흰 옷이.
-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.

3.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?

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%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.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%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.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. 그는 “보통 사람은 뇌의 10%를 사용하는 데 천재는 15~20%를 사용한다.”라고 말한 바 있다.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%가 아니라 6%라고 수정했다.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

단지 1%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.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.1%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.

-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.
- ② 어른들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.
- ④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.
-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4.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?

- 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.
- 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.
-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.
- 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끗 벌리었다.
- ⑤ 껍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.

5.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?

- ① 이순(耳順) ② 종심(從心)
- ③ 지천명(知天命) ④ 불혹(不惑)
- ⑤ 이립(而立)

6.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?

-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
-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.
-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
-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.

7.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‘다리(脚)’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‘책상’에도 쓰인다.
- ② ‘짐승’은 ‘衆生’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.
- ③ ‘사랑하다’는 ‘생각하다’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.
- ④ ‘어여쁘다’는 ‘조그맣다’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‘아름답다’의 의미이다.
- ⑤ ‘어리다’는 ‘어리석다’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‘나이가 적다’의 의미로 쓰인다.

8.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?

봄·여름·가을·겨울, 두루 사시(四時)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.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,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, 봄 가운데도 만산(萬山)에 녹엽(綠葉)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.
 - 이양하, <신록예찬> 중에서

- ① 두루 ② 가장 ③ 풍성히
 ④ 아낌없이 ⑤ 아름답게

9.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?

-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.
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.
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.
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.
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.

10.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?

쿵트, 더블, 게임, 피어로

-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 만을 쓴다.
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.

11.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게 옮긴 것은?

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.
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.
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.
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.

- ① 不淨－不正－不正－否定
 ② 不正－不淨－不定－否定

- ③ 不定－ 不淨－ 否定－ 不定
- ④ 不貞－ 否定－ 不淨－ 不定
- ⑤ 不貞－ 不定－ 否定－ 不淨

12.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?

- ① 桑麻之交 ② 刎頸之交 ③ 膠漆之交
- ④ 金蘭之交 ⑤ 水魚之交

13. 다음 중 창작군담소설(일명 영웅소설)의 특징이 아닌 것은?

- ① ‘영웅의 일생’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.
-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.
-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.
- ④ 시·공간적 배경은 16~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.

14.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?

- ① 김동리,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.
-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.
-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.
- ④ 전원파, 청록파,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.
-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(KAPF)가 해체되었다.

15.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?

머언 산 청운사(靑雲寺)/ 낡은 기와집
 산은 자하산(紫霞山)/ 봄눈 녹으면
 느릅나무/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
 청노루/ 맑은 눈에
 도는/ 구름

－ 박목월, <청노루>

-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.
-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.

16.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?

- ① 가상(假像)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.
- ② 가시(可示)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.
-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(遍歷)이 드러나 있다.
- ④ 그 이야기는 과장(誇長) 없는 사실이다.
- ⑤ 삶에 대한 통찰(通察)이 묻어나는 말씀이다.

17.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.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?

잇몸, 바닷가, 뒷일, 전셋집

-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‘ㄴ’, ‘ㄹ’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-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,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.

18.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? (‘V’는 띄어쓰기 부호)

- ① 옷V한벌V살V돈이V없다.
- ② 큰V것은V큰V것V대로V따로V모아V뒀다.
- ③ 강아지가V집을V나간V지V사흘V만에V돌아왔다.
- ④ 이V나무는V10V미터가V넘는다.
- ⑤ 합격했다는V말에V뿔듯이V기뻐하였다.

19.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궁도런님 :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② 윤뚝뚝이 : 사리에 어둡고, 아는 것이 없는 사람
- ③ 책상물림 :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
- ④ 두루치기 :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. 또는 그런 사람
- ⑤ 대갈마치 :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

20.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.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?

- ① 눈대중 - 눈어림 - 눈짐작
- ② 보통내기 - 여간내기 - 예사내기
- ③ 멀찌감치 - 멀찌가니 - 멀찍이
- ④ 녁쿨 - 덩굴 - 덩쿨
- ⑤ 되우 - 된통 - 되게

정답 및 해설

1. 두 가지 의미 해석 (모호성)

- ① 친구를 만난는지, 친구의 동생을 만난는지 모름.
- ② 가정에 충실한 것이 주부인지 주부와 남편인지 모름
- ③ 따로 찾아 뵈는 것인지 국어 선생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찾아 뵈는 것인지 모름
- ④ 아내와 남편을 비교한 것인지 남편과 아들을 비교한 것인지 모름.
- ⑤ ‘배’가 먹는 배인지 파는 ‘배’인지 모호함
- ①~④는 문장의 모호성인데 ⑤는 단어의 모호성이다.

정답 ⑤

2. 주어진 보기는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.

- ① 붓 - 그림(대유법)
- ② 굵어본(의인법)
- ③ 비교법
- ④ 도치법
- ⑤ 은유법

정답 ②

3. 주어진 글은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 따라서 이어질 내용은 두뇌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. ⑤ 개성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하자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.

정답 ⑤

4. ① 입학률 ② 어린이날 ③ 체하였다 ⑤ 껌질째

정답 ④

5. ① 이순 = 60세 ② 종심 = 70세 ③ 지천명 = 50세 ④ 불혹 = 40세 ⑤ 이림 = 30세

정답 ②

6. ③ 모름지기 사람들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.로 고치는 것이 좋다.

정답 ③

7. ① 어휘확대 ② 어휘축소 ③ 어의전성 ④ 어의전성(불쌍하다 -> 예쁘다) ‘조그맣다’와는 상관없다.
⑤ 어의전성

정답 ④

8. ①, ②, ③, ④는 부사 ⑤는 어미활용을 하니까 형용사

정답 ⑤

9. ① 관형절을 안은 문장 (예쁜)

- ② 명사절을 안은 문장 (비가 오기)
-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
- ④ 명사절을 안은 문장 (때임)
- ⑤ 인용절을 안은 문장 (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)

정답 ③

10. 쑹트, 떠블, 께임 뵼어로로 적지 않는다. 즉,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.

정답 ①

11. 不正 :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

不淨 : 불길한 일

不定方程式 :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

否定 :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

정답 ②

12. ① 상마지교 :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

② 문경지교 :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

③ 교칠지교 : 서로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

④ 금란지교 :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.

⑤ 수어지교 :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

정답 ①

13. 창작 군담소설은 대부분 공간 배경이 중국이다.

정답 ④

14. 김동리, 김유정은 동반자작가가 아니다. 유진오, 이효석, 채만식, 유치진, 박화성 등이 동반자 작가에 해당한다.

정답 ①

15. 먼 산에서 시선을 이동하여 노루의 맑은 눈을 제시하였다.

정답 ①

16. ① 假想 ② 可視 ④ 誇張 ⑤ 洞察

정답 ③

17. ① 바닷가 [바다까/바단까]

② 잇몸 [인몸]

③ 텃밭 [된밭]

④ 전셋집 [선세집/전센집]

정답 ⑤

18. ① 한 벌 ② 것대로 ④ 10미터 ⑤ 뿔 듯이 단 '10미터'는 어문규정에 붙여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말은 띄어 써도 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.

정답 ③

19. 윤뚝뚝이 :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.

정답 ②

20. '덩쿨'은 비표준어에 해당한다.

정답 ④